

News

'점진적' 파기하고 '적절한' 택한 한은...금리 정상화로 직진

연합인포맥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75% 인상하며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의 향후 정책 기조에 대한 핵심 서술 수정... 지난 8월 '점진적'에서 '적절히' 완화 정도 조정하겠다고 언급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연속된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점을 신호... 임지원, 서영경 두 위원이 금리인상 소수의견 제시

토스뱅크, 나흘째 신규가입 중단...대기자만 121만명

조선비즈

토스뱅크, 9일부터 현재까지 사전 신청자의 신규 가입 중단 중... '무조건 연 2%' 예금통장 사전 신청자 166만 명 중 12만 명은 사전신청했음에도 다시 문 열리기를 대기해야...
대출 중단 사태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 이미 금융당국이 정한 토스뱅크의 올해 대출 총량의 60% 도달

5대 은행 외화예금 100조 육박...수출 회복에 '미소'

데일리안

올 상반기 말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개 은행의 외화예수금 잔액 98조 2,0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34조 1,806억원으로 최대 기록... 외화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 겪던 은행권에게 외화예금 확대는 긍정적으로 해석

카뱅, 카카오에 낸 브랜드사용료 5년간 10배로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 모기업 카카오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율 0.3%로, 4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전문은행 중 가장 높은 것으로 기록
브랜드 사용료는 대표적으로 수익률을 갉아먹는 요인... 은행권 관계자 "각 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신생 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수료를 적용했다는 점은 실적 영향 가능"

생명보험사, 디지털 전환 통해 소비자 일상 '한걸음 더'

프라임경제

생명보험협회, 환경 변화에 따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소비자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공에 총력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 특히 인슈어테크가 주목 중
일부 생보사의 경우, 스타트업 투자 지원 및 사무 공간 제공 등의 육성 프로그램 진행 중... 디지털화 대표 유형으로, AI 언더라이팅 자동화, 모바일 앱, 보험 가입 관련 플랫폼 운영 등

실손보험 중복 가입 막겠다더니... '개인실손 중지제도' 유명무실

조선비즈

국내 전체 실손 가입자 약 3,500만 명 추산... 직장을 통한 국내 단체실손 보험 가입자는 450만 여명... 단체실손은 개인실손과 보험료를 중복으로 부담해도 추가 혜택 불가
124만 명 중 개인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15,214명으로 1.2%... 보험연구원 "보험사에 구 세대 개인실손으로 계속 보장 요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금융투자업계도 '위드코로나' 대비 분주

e대한경제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본격화에 앞서, 금융투자업계도 대비책 마련에 분주... 비대면 강화, 비상대책 등 큰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
또한 업무 마비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도 강화할 것... 경기재개주와 컨택트 증폭에 대한 리서치 종목 강화... 해외 대체투자 분야도 보강

증권사, 파생상품 수익 4조 '뚝 ↓'...미래에셋은 '적자 수렁'

아시아투데이

올 상반기 기준 국내 10대 증권사의 파생상품 이익 합계 1조 2,093억원... 전년 동기 대비 77.3% 줄어든 규모
미래에셋증권, 주식관련 파생상품에서 2,909억 7,300만원 거래손실 기록... 코로나19로 국제금융시장 2~3월 크게 악화되며 파생상품 손실이 많이 난 것으로 관계자 언급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